

제 3 권 내적 위로

56 장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짐, 3-6 절

요 21:18-19 -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시 68:19, 35 - 19.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35. 하나님이며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이다.

3. <제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좁고 험한 삶을 사셨사오니, 나도 주를 본받아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종이 주인만 못하고, 제자가 스승만 못한 법이오니(마 10:24), 이 종을 훈련시키셔서, 주의 삶을 본받을 수 있게 하소서. 거기에 나의 구원이 있고, 참된 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삶을 본받는 것이 없다면, 어떤 것을 읽고 어떤 것을 듣더라도, 나는 그런 것들로는 온전한 힘과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4. <그리스도> 아들이여,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알았고 읽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행하기만 한다면, 네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나의 계명을 간직하고 지키는 자, 바로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요 14:21). 그러므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5. <제자> 주여, 나로 하여금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는 십자가를 받았고, 주님의 손에서 그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게 짊어지게 하신 그대로 그 십자가를 죽기까지 지고 갈 것입니다. 사실은 수도원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어느새 낙원에 이르러 있을 것입니다.

6. 형제들이여, 함께 전진해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갑시다.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을 각오를 합시다. 십자가로부터 도망쳐서, 우리의 영광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해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영적 승리를 얻는 비결은 여러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때때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 뿐, 삶 속에서 우리 몸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에는 말씀의 핵심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설교는 다음 세 가지의 핵심 요소로 이루어진다 - 주석, 해석, 적용. 성경 본문은 심도 있게 주석되고 분석되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해석하여 발견된 메시지는 반드시 적용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적용되지 않는 말씀의 주석과 해석은 큰 의미가 없다.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 될 때 의미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으며,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유념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1) 십자가는 부르심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다양한 종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중에 십자가를 지라는 부르심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 속에서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 녹아 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받으셨고, 그 사명을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감당하셨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든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2)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는 고난을 감수한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고난도 당하는 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 가셔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요 21:18)고 하셨는데, 요한은,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요 21:19)라고 기록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주님은 베드로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각오함으로 주님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다.

3)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등장한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강하게 만류하자 예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마 16:23)라고 하셨다.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막아서며 넘어지게 하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내가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도 나를 막아서는 것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다른 길로 가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는 등 다양한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음을 늘 생각해야 한다. 특히 성도들이 경험하는 유혹은 가장 강한 장애물 중의 하나일 것이다. 베드로의 만류는 예수님께는 일종의 유혹이었을 수 있다.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며 훈련하신 예수님께 임한 마귀의 세 가지 유혹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다.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 같이 유혹으로서의 장애물을 넘어섬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

4) 십자가는 일상의 삶에서 지는 것이다. 아킴피스는 “사실은 수도원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십자가”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은 매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의 삶 역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척박한 삶 속에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삶이 힘들지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나와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에 상관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나에게 해악을 끼치고 심지어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베푸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때때로 삶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줄 때에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생각을 할 때 주님과 같은 영적 기백과 용기와 강단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고 고백했다. 시 68:19 -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시 68:35 - 하나님이며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이다.

십자가는 부르심이며, 사명이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고난을 통과하며 수많은 장애물도 만나게 한다. 십자가의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비록 때로는 힘들어도, 십자가를 질 때 승리하며,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며,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십자가는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닳아감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 한국과 세계 만방에 세워주신 한인교회들 위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더하셔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3. 창립 50 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 그리스도를 닳아가며 성숙해 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